우주근본 우리 마음과 직결 · 가설

☞ 17면에서 계속

게 하려니까 태양계도 생겨야 하고, 행성도 있어야 하고 우리가 지금 사는 생활 속이나 그 속이나 똑 같습니다. 그런데 직결이 됐다는 이유는 뭔가. 지금 우리가 마음먹고 하는 것이 컴퓨터에 입력되면서 그냥 직결 돼 있습니다. 같이 돌아갑니다. 거기에서는 벌써 한 계단을 거쳐서 우리가 마음 쓰는 거를 알기 때문에, 계발시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물질 과학이 발전이 되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 아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대로 거기서 받아서 또 발전을 시킨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냥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상하게 되는 것도 마음을 잘 못 쓰기 때문에 그 못 쓴 마음이 올라가 입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 이건 말로다가 이름을 지어서 할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될 수 있으면 마음을 잘 쓰십시오. 꿈을 꾸더라도 한생각 잘 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또는 중생이니까 모자라니까 힘이 없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모두 우주와 직결 돼 있고, 가설이 돼 있고 용도에 따라서 끌어 쓸 수 있는 자본이 모두 나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지수화풍이 바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는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도 꺼내서 끌어 쓸 수가 있는 용도가 주어져 있다 이겁니다. 지수화풍이 없으면 에너지를 방출시킬 수도 없어요. 허나, 내가 지수화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수화풍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지수화풍이기 때문에 지수화풍으로 살고 있고, 지수화풍이 살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모두 주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체 만물만생이 자동적으로 통신이 되고 뜻으로 통신이 돼서 만물이 전부 짹짹짹만 해도 무슨 소리구나 하고서 전부 따라 옵니다. 모이자 하면 모이고 흩어지자 하면 흩어지고, 먹을 것이 저기 있으니 가자 하면 가는 겁니다.

이것이 말로만 우리가, 우리 생각, 우리 차원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 잣대에 재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모두 정말 풍부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깔보지 말고 뭐든지 네 스승으로 알라고 했습니다. 알려라도 물어가면서 가거라, 이런 겁니다. 배우는 사람으로서는 모두 스승, 은인이라는 거를 알아야 한다. 내가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한치도 어긋나게 해서는 안된다. 내가 모든 만물이 아니었더라면 보고 듣고 배울 수가 없고 배울 수가 없었으니까 먹고 살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모두 은혜로운 사람들이고 은혜로운 생물들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정말이지 모두 은혜를 갚는 게 되고 정법으로 꼭 나갈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법을 배우는 것이 대승이다 한다면 큰마음을 가진 사람의 행이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승법이라는 것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항상 놓으려고 하고 넓혀 가는 마음은 한계가 없으로 나온 이 자체, 몸은 바로 공기력과 태양력을 흡수하니까 또 밑으로 내려보내는 거죠. 즉 말하자면 정맥과 동맥이 서로 돌아가면서 살고 있는 거와 같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자기 뿌리를 믿어야만 되는데, 그래서 '뿌리야 에너지를 이만큼 좀 흡수해서 올려 보내다오.' 하는 거나 진배없는 겁니다. 용도를 너무 잘 아니까 말입니다. 싹이 생각하는 거를 뿌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직결돼 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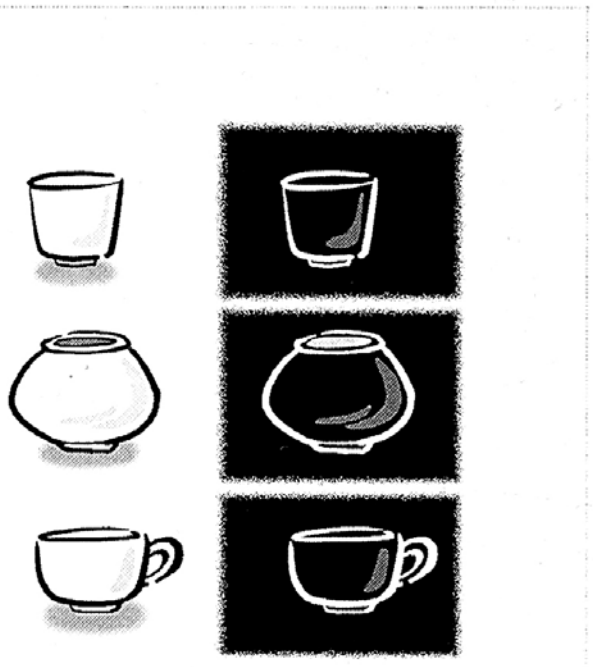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다가 금방 이거 어떡하나? 누구 부르고 누구 찾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있다면 지켜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테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변호사한테 가서 청하지 않는데 일이 되는 겁니까? 청하지 않고도 됩니까? 안 그래요? 그러고 잘못됨과 잘됨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고 되는 일입니까? 밥을 짓지 않고 생쌀 놓고 그냥 밥이 됩니까? 이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쌀을 넣고 코-드 꽂지 않으면 그냥 밥통은 지키고 있는 거죠. 허허허…. 그거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는 건수가 와야 할텐데 건수가 안 오니까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거와 같아요. 생각없는 일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송장이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가 첫째 일요일날 이렇게 모여서 토론하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나와서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하면서도 안했지 않습니까? 하하하. 그러니까 여러분도 함이 없이 질문하고, 또 함이 없이 대답하고 해서 그 가운데서 느끼고 체험하고 깨닫는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책이라는 거는 누가 썼든, 길잡이일 뿐 책이 아닌 바로 내 마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한 구녘에서 나오는 거 한 구녘에다 틀어넣으면서 입력을 시키면서 모든 거를 거기다 전제하고 부지런히 된다면 뛰는 자체도 바로 거기니까. 어떤 때는 때로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 하필이면 이런 걸 보고 살게끔 했나….' 하면서 아주 비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럴 때 '야, 이왕이면 왜 비참한 생각이 들게 하냐?' 합니다. 그러면 다시 바꿔지죠. 이 마음이라는 게 체가 없는 거라 그렇게 순간순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공부 하는 데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몽땅 다 가르쳐 놓는다면 오히려 안에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전자에 살던 나를 발견해내지 못하거든요. 즉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마음대로 들이고 내고 할 수가 있어야만 이 심성과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물질과학이지 심성과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질과학을 발전을 시킨다면 바로 먼저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전자에 살던 너부터 발견해라. 그러면 모두 찰나찰나 들고 나는 거를 알 수 있느니라. 생명이 없는 거든지 있는 거든지, 보이는 거든지 보이지 않는 거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해 놓고 모두를 둘 아니게 할 수 있다. 둘 아니게 볼 수 있고, 둘 아니게 작용할 수 있고, 이래야 우주하고도 직결이 된 줄 알고,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이 위대하게 띄워 보냈다 할지라도 그 어느 고장이고 마음 하나만 딱 잘못해 놓으면

> 마음을 찾아야 합니다
> 그것도 밖에서가 아니라
> 바로 내가 있는 자리서
>
> 한 생각 잘 하세요
> 중생이라 모자라니까
> 힘없다 생각 마세요

그거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없어지겠지마는 미리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늘의 열쇠를 가진 사람은 좋은 방향으로 나가죠, 즉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행성이 지구에 부딪쳐서 지구가 망가지게 생겼다, 인명이 많이 상하게 생겼다, 지구가 파워를 일으켜서 모두 부서져 버린다든가 타버리는 문제가 생길 때도 내가 위성이 된다면 절대로 지구를 망가지게 안할 겁니다. 내가 지구를 알고 있는데 부딪치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위성이 돼 가지고 저 먼 데 놓고 옵니다. 이렇게 아주 광대한 법이며, 부처님법이라기 보다도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 법이고, 우리들 법이자 부처님 법입니다. 이 광대한 법을 부처님이 먼저 깨달아서 세세생생에 이 도리를 모르면은 자유인이 될 수 없고 평등공법을 행하지 못한다고 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처님 말씀 그대로 하지 않고 용어를 달리 말한다고 해서 부처님 법하고는 딴 세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옛날에 달구지라고 했다고 지금 달구지라고 해야 옳겠습니까? 부처님께서도 시대가 변천하는 대로 계율을 바꾸고 방편도 바꾸라고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돌 하나 버릴 게 있습니까? 전체가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입니다. 그러니 부처님 법 따로 있고 우리들 법 따로 있고, 현재 법 따로 있고 과거 법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뚝배기를 하나 만들었는데 지금은 좋게 꽃을 만들어서 찻잔으로 이름을 지어 놨죠. 지금은 찻잔이 필요한 시절이지 전자에 뚝배기로 썼다고 해서 지금도 뚝배기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뜻은 다 똑같애요. 과거나 현실이나 미래나 똑 같은데 발전하는 대로 용도와 방편이 자꾸 변하죠. 그래서 갓 낳아놓으면 애기라 그러고, 조금 자라면 학생이라 그러고 조금 또 더 자라면 청년이라고 하고 조금 더 자라면 어른이라고 하고, 더 자라면 늙었다고 합니다. 물질이 생긴 대로 이름을 붙이는 거지 처음에 애기더러 어떻게 늙었다고 이름을 바꿉니까? 변천하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이름도 정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이며, 발전이며, 물질과학 보다도 심성과학으로서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공부의 체험을 한번 해 보시면 알 바가 있을 겁니다. 대답이 나오니까요.

※위 법문은 1994년 5월 1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물이 스승, 돌 하나에도 은혜를…

어요. 무슨 우주가 한계가 있다, 삼천대천세계가 한계가 있다는 것도 없고 넘어가면 넘어가는 대로 넘어가고, 넘어간다는 소리조차도 붙일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리를 즉흥적으로, 항아리가 뿌리라면 싹은 몸입니다. 이 싹은 뿌리로 인해서 삽니다. 그런데 뿌리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분이나 수분이나 철분을 흡수해서 에너지를 올려 보내게 돼 있습니다. 이건 자동적입니다. 그래서 바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게 아니고 그저, 예를 들어서 몸이 턱 쓰러졌다면 그냥 야단을 합니다. 침착하게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려! 애나 어른이나 다 죽는 거지마는 '죽게 하는 것도 너고 살리게 하는 것도 너니까 알아서 해!' 하고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빈 손과 빈 발이 그냥, 송두리째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죠.

그래서 온 몸의 의식들을 작용케 해서 낫게 하는데, 뭐 그냥 금방 주인공, 이랬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분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레이키(Reiki 靈氣)가 왜 화제인가!

모든 대체요법가가 갖춰야 할 기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3일만 배우면 되기 때문입니다.

워니 워니 해도 레이키야 말로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르게 우주생명 에너지 요법가(氣치료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레이키에는 어튜먼트 라는 비법이 있어서 여러해씩 기공수련을 해야 하는 기공과는 달리 즉각 누구나 우주 생명에너지 요법가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미 세계 인류의 가장 과학성 높은 氣문화 체계로 자리잡혀 있는 레이키는 모든 대체요법가(침뜸 전문가, 지압사, 맛사지사, 피부관리사, 아로마 요법가, 활법사, 골격조정가, 발반사 요법가, 단식원 운영자, 기공 치료가, 생식 요법가, 심령 상담가, 최면 요법가 등)가 갖춰야할 기본 능력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대체 요법가들이 기본적으로 함께 쓸 수 있는 생명에너지 바로 레이키입니다. 레이키는 일본의 우스이 미카오(1865~1926)씨가 발견하고 체계세운 방법이 미국, 일본 등의 레이키 관계자들에 의해 발전된 氣의 과학입니다.
레이키는 건강전체를 개선하는 효과적인 생명에너지입니다.

1. 우스이 레이키(교육기간 3일, 교육비 70만원)
2. 카루나 레이키(교육기간 2일, 교육비 50만원)
   카루나 레이키는 우스이 레이키를 배운 분이 다음 단계로서 배우는 새로운 레이키 입니다.
3. 저(박희준)는 이런 사람입니다.
   지난 20년간 건강분야, 정신세계 분야의 번역가 · 저술가로 활동해 오다가 1996년 부터 일본 등에서 레이키를 만나 여러 갈래의 레이키를 폭 넓게 배워 우스이 레이키 마스터(선생)와 카루나 레이키 마스터가 되었고 1997년 부터 「현대 생활 레이키 연구회」를 개업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정신과학학회 이사.

현대 생활 레이키
연구회 대표 박희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Reik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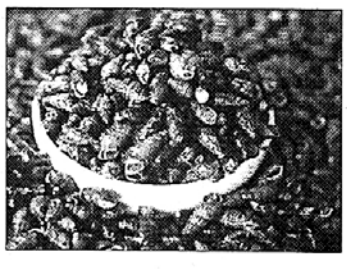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 전화 : 02)720-5682, 720-5719, 팩스 : 02)720-5720
◇ 핸드폰 : 019-392-2557, 018-850-1680

지리산자락 무주구천동 신비의

다슬기

당신의 "간·간·간"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질환… 걱정되시죠?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 (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아부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무주 구천동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왈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씻고 헹굼 시킨다. 다음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숙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프 단위로 포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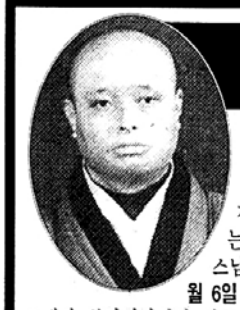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됨」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자료신청 : 055) 963-9583 상담문의 : 055) 355-5626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엣부터 금강산 승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재분량을 탕재로 하여(한박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래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증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석지수 입장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승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시주금은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